

## 도시 커먼즈의 생태학을 위한 시론\*

권 범 철\*\*

### 〈차 례〉

- |                                 |   |
|---------------------------------|---|
| I. 서론: 노동을 문제화하기                | III. 인공적인 공통적인 것을 자연적인<br>공통적인 것과 다시 연결하기 |
| II. 임금노동을 중심에 둔 삶을 위한<br>공간, 도시 | IV. 도시적인 것의 가능성                           |
|                                 | V. 결론: 도시 커먼즈에서 자연의 자리                    |

핵심주제어: 도시, 도시 커먼즈, 도시적인 것, 공통적인 것, 자연

### I. 서론: 노동을 문제화하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체계다. 그 효과는 어떤 것인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일부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 된다. 맑스가 자본주의의 기원으로 이야기한 인클로저는 생산자를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하여 “무일푼의 자유롭고 의지할 곳 없는 프롤레타리아”<sup>1)</sup>로 만든다. 즉 임금노동자를 만든다. 자본주의는 이 과정을 통해 노동을 강제하는 체계다. 이 체계 하에서 생산자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일을 하여 돈을 벌고 — 임금 노동의 경우 — 필요한 것을 사고 쉬고 놀고 자고 다시 일한다. 아니면 일을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까닭에 — 집에서 이루어지

2025년 12월 26일 접수, 2026년 02월 05일 수정, 2026년 02월 23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3055235).

\*\* 동아대학교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Email: paledall@gmail.com)

1) 칼 마르크스, 『자본론 제1권 (하)』,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01, 983쪽.

는 돌봄/재생산 노동, 학업, 공동체 활동 등의 경우 — 기생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러한 차이와 차별과 위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노동은 신성시된다.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높이 평가받는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말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을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기생체 취급을 받으면서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돌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칭송받는다(그에 따라 무상/저렴화되지만 말이다). 이처럼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노동자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노동의 가치는 신성하다.

그러나 다중재난 시대에 우리는 노동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재고해야할 것 같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그렇다. 우리의 노동이 기후 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재앙적인 효과를 낳는 자본주의 체계를 계속 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세계를 멈출 수도 있다’는 문구의 의미 역시 재고해야할 것 같다. 본래 노동계급의 힘을 뜻했던 이 문구는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말 그대로 세계를 멈출 수도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세계를 대멸종과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주지하다시피 생태 위기라는 파괴적 효과는 자연을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 창고이자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할 때 발생한다. 이 효과를 경제학자들은 외부성이라 부르지만 그 효과는 사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자연의 외부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당연하게도 자연의 변화는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가 세계를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방식이 문제다. 대부분의 노동이 이 문 제적인 체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세계의 파국에 기여한다.

세계의 파국에 기여하는 노동이 공장과 사무실의 노동만은 아니다. ‘사랑의 노동’도 파국에 기여한다. 그 노동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한에서 그렇다.<sup>2)</sup> 또한 학업을

2) 그러나 돌봄/재생산 노동은 생산 노동과 다르게 상품 생산(돌봄의 경우 노동력 생산)이라는 목적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본주의적 과제를 넘쳐흐를 수도 있다. 우리가 돌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다음을 보라. Hansen, Bue Rübner/Zechner, Manuela, “Extending the Family: Reflections on the Politics of Kinship,” *Commoning: with George Caffentzis and Silvia Federici*, Edited by Camille Barbagallo, Nicholas Beuret and David Harvie, London: Pluto Press, 2019.

비롯해 많은 일을 하지만 돈은 벌지 못하는 여러 비임금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가족 내 임금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조리를 참고 계속 열심히 일하도록 강제한다. 자신의 임금 획득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그 내부에 임금 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를 짝 지움으로써 그러한 노동의 강제를 작동시킨다. 이런 한에서 가족은 그 자체로 (노동력 상품을 재생산하는) 공장이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런 장치 역시 세계의 파국에 기여한다.

요컨대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 하는 일이 우리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지독한 모순이 우리의 비극이다. 그러니 우리의 재생산을 위해 임금노동을 중심에 두는 방식을 문제화해야 한다.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한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고,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하며, 개발을 멈추지 말고 가속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결과는 우리 삶의 터전의 붕괴다. 그리고 그 터전이 붕괴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를 재생산하는 다른 방식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해도.

## II. 임금노동을 중심에 둔 삶을 위한 공간, 도시

여기서 도시 공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임금노동을 중심에 둔 삶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도시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의 경우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클로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땅과 봉건제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도시의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땅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재생산하는가?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은 임금을 받겠지만 화폐를 먹고 살 수는 없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재생산이 이루어지는지 '안다.' 화폐를 먹을 수는 없지만 화폐로 먹을 것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먹거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공간적 패턴이 조직된다. 도시에 몰린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 도시 바깥 어딘가가

식량, 에너지, 원료 등의 공급처로 조직되는 것이다. 즉 시골이 된다. 이런 점에서 도시와 시골은 별개의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힘이 작용하면서 생성된 공간적 불균등 패턴이다.<sup>3)</sup>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이 생산의 중심지로서 도시를 만들어낸다면, 그곳의 (재)생산을 위해 봉사하는 공간으로서 시골이 조성된다. 도시의 임금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건, (물론 직접적으로는 집안의 노동자가 수행하는 재생산 노동 덕분이지만) 도시-시골이라는 공간적 패턴이 짜여 있기 때문이다. 도시를 위해 각종 물자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골(과 그곳의 노동자) 덕분에 도시의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가 부상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공간적 패턴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하에서 강제된 임금노동을 중심에 둔 삶은 도시-시골이라는 문제적 패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임금노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생계는 공간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도시-시골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수준의 문제는 서로 얽혀 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고 잠을 자고 다시 일을 하는 재생산 순환의 과정에서 도시인은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산다. 인간은 자연에 속하며 그로부터 벗어나 살 수 없지만, 아니 자연의 일부이므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도시인은 자연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해방된’ 것처럼 산다. 도시라는 새로운 ‘자연’이 이를 보장한다. 그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재화는 도시의 인프라를 통해 상품 형태로 공급된다. 그에게 필요한 건 자연이 아니라 화폐로 보인다. 실제로 도시는 돈만 있으면 재생산이 가능한 곳이다(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다른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산이 불타고, 바다에서 산호초가 사라지고, 한 마디로 생명이 버티지 못해 사라지는 그 모든 엄청난 생태계의 변화가 도시인에게는 단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주식 가격의 변동 요인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그러나 ‘저렴한 자연’<sup>4)</sup>의 종말과 함께 필

3)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하나의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우리가 아는 시골과 도시의 역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기본적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레이먼드 윌리엄스, 『시골과 도시』, 이현석 옮김, 나남출판, 2013, 575쪽).

4) 제이슨 무어,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0.

요한 돈은 점점 늘어난다). 생태 위기는 도시-시골의 공간적 패턴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현상으로 축소되어 나타나며, 이를 통해 도시는 위기를 (도시민의 삶형태를 어쨌든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지연시키는 동시에 (지구 생태계 전반의 위기를 가린다는 의미에서) 가속시킨다.

요컨대 자연의 일부인 도시인이 자연이 아니라 화폐를 재생산의 핵심으로 여길 수 있는 건, 도시 공간이 자연으로부터 ‘해방’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해방’이 가능한 것은 시골을 자신을 위해 봉사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민의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은 시골에서 온다. 반대로 도시민이 버린 모든 쓰레기는 시골로, 도시민이 알고 싶지 않은 어딘가로 향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임금노동을 중심에 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문제적인 공간적 패턴은 거꾸로 도시 노동자가 임금 외에는 달리 의존할 것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즉 도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결과물인 것만이 아니라 도시적 인프라와 상품 형태로 제공되는 재화에 자신의 재생산을 의존하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 도시가 자연을 인프라의 한 요소로 재구조화하면서, 자신의 “생명선을 도시적 시스템에 대폭 의존하는” “메트로폴리스적인 신체”<sup>5)</sup>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의 말처럼 도시적인 것은 단순히 상부구조가 아니라 생산양식의 한 마디로 작동한다. 그에 따르면 산업 자본이 성장하여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듯한 과정 속에서,

... 이 과정의 효과, 즉 도시적 현실[도시적인 것] 자체가 원인이자 이유가 된다. 즉 유도되었던 것이 다시 지배적인 것(유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 도시적 현실은 생산관계를 전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에 수정을 가한다. 도시적 현실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생산력이 된다. 공간과 공간의 정치는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면서 그에 반작용한다.<sup>6)</sup>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도시적인 것이 일종의 생산력이 된다는 표현이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생산성에 기여하는 힘으로 작동하는가?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품

5) 이와사부로 코소, 『유체도시를 구축하라!』, 서울리더티 옮김, 갈무리, 2012, 58쪽.

6) 앙리 르페브르, 『도시혁명』, 신승원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24, 26쪽.

형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래서 다른 재생산 방식을 생각하지 못하는) 도시적 신체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보자.

자본의 성패는 사람들의 역량을 다른 무엇도 아닌 노동으로 분출시키는 데 달려 있다. 다른 활동을, 특히 다른 재생산 양식을 발명하는 그런 일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람들의 삶을 노동으로 환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갖는데, 사람들을 끝없이 노동하게 할 때 “유일하게 계획할 수 없는 자본의 요소”인 노동계급을 계획 가능한 요소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7)</sup> 이를 통해 사회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본주의가 노동 강제 시스템인 것은 단지 이윤만이 아니라 원활한 통치를 위한 것이다.<sup>8)</sup> 따라서 노동을 강제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가 동원된다.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진전됨에 따라 자본의 요구를 자명한 자연법칙으로 여기는 노동계급이 발전한다고 썼지만<sup>9)</sup> 그러한 법칙을 거부하는 운동이 끊임없이 출현하는 까닭에 폭력과 이데올로기적 장치는 계속해서 요구된다. 이것이 “새로운 인클로저”가 필요했던 이유였다. 미드나잇 노트는 “197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온 축적 과정의 대규모 재편”을 “새로운 인클로저”로 명명하면서 이것의 목표가 “아메리카로 이식되었던 아프리카 노예들처럼, 노동자들의 조직적 힘이 구축된 지형에서 그들을 축출하여 고향에서 가능했던 저항의 형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낯선 환경에서 일하고 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0)</sup> 구체적인 지형에 뿌리내린 사람들을 뽑아내어 세계 곳곳에 던져 넣는 과정을 통해 이들을 무력한 임금노동자로 주조하는 것이다.

도시적인 것 역시 이러한 역할에 가담할 수 있다. 르페브르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수동성을 보이는 이유를 추상 공간이 구체적 공간을 대체한 데서 찾는다. 구체적 공간이 다종다양한 삶의 욕망이 구성하는 공간이라면 추상 공간은 위로부터

7) 해리 클리버, 『자본론의 정치적 해석』, 권만학 옮김, 풀빛, 1986, 90쪽.

8) 해리 클리버는 이윤 창출이 우리에게 일을 부과하여 우리를 통제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본주의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다음을 보라. Harry Cleaver, *Rupturing the Dialectic: The Struggle against Work, Money, and Financialization*, Chico, CA: AK Press, 2017.

9) 마르크스, 앞의 책, 1013쪽.

10) Midnight Notes Collective, “Introduction to the New Enclosures,” in Silvia Federici, *Re-enchanted the World: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Oakland, CA: PM Press, 2019, p. 28.

터 주입된 공간이다. 즉 공간의 추상화란 도시가 우리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과정이다.<sup>11)</sup> 이를 통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며, 이는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르페브르는 이를 거주함과 거주지의 대비로 설명하는데, 전자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데올로기이자 실천으로서 거주지는 “동질적이며 양적인 공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체험’을 상자, 감옥 혹은 ‘거주 기계’에 유폐하는 것”이다.<sup>12)</sup> 도시 공간이 완전하게 추상화될 때 삶은 프로그램이 된다. 우리의 맥락에서 프로그래밍된 삶이란 바로 노동에 가두어진 삶이다. 물론 도시 공간의 추상화만으로 이러한 삶형태가 조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상 공간은 분명 그것에 기여할 수 있다.

추상화=기능화란 분열과 증식이 멈추고 사물화되는 과정이다. 모든 일은 그것을 초과하는 흐름과 함께 진행되고, 본래의 의도를 넘어서는 분열과 증식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지만 기능화가 퍼져갈 때 삶은 정해진 목적지로만 달린다. 그 길은 주어져 있다. 반듯하게 계획된 도시는 대표적이다. 현대의 삶을 고안하는 도시계획은 공간을 기능적으로 구분한다. 그 계획에 따라 이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그 옆에는 공원이, 그 옆에는 쇼핑몰이, 그 옆에는 병원이, 그 옆에는 지하철역이 들어선다. 모든 곳은 기능에 따라 정의되어 있다. 그러한 기능적 구획으로서 도시계획의 역할은 미래를 현재의 기능 안에 가두어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파트에서는 잠을 자고, 공원에서는 산책하고, 쇼핑몰에서는 쇼핑하고, 병원에서는 진료 받고, 지하철역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간다. 그것을 초과하는 흐름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늘 위협을, 즉 질서에 대한 위협을 내포한다. 따라서 초과분은 제거되어야 하며 도시계획과 건축술, 각각의 공간을 둘러싼 치안은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짜여 있다. 도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판에 다 쓰여 있다. 삶은 그 선택지 중 하나를 소비하는 것으로 채워진다. 그 바깥으로 나가는 쉽지 않을뿐더러 범죄화되기도 한다. 삶은 고정된다. 생동을 멈추고 권태에 빠진다. 이렇게 도시의 미래가 예

11) “도시에서 점점 더 많은 공공공간이 우리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Don Mitchell,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New York: Guilford, 2003, p. 18; 최병두, “도시발전 전략에 있어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4권 제5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8에서 재인용).

12) 르페브르, 앞의 책, 137쪽.

측 가능한 것이 될 때 도시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자본은 예측 가능성을 선호한다. 자본은 노동계급을 노동력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도시 공간의 추상화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자연의 재현이 “도시적 현실을 경유해서, 도시적 현실에 의해서, 도시적 현실을 위해서만”<sup>13)</sup>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도시는 이제 유일한 자연 그 자체가 된다. 이 자연은 재생산에 필요한 재화를 상품 형태로만 제공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은 노동에 몰두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더욱 생산적인 인간, 즉 “자본가를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 또는 자본의 가치증식에 기여하는 노동자”<sup>14)</sup>가 된다. 또한 생산적인 인간은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삶을 불가능하게 여기는 사람이기도 하다.

도시를 문제화하는 건 이러한 맥락에서다. 다중재난을 낳는 시스템을, 그 시스템에 기여하는 노동을, 그러한 노동이 중심이 된 삶형태를 문제화하려면 도시를 문제화해야 한다. 도시가 그러한 삶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강제하기 때문이다.

### Ⅲ. 인공적인 공통적인 것을 자연적인 공통적인 것과 다시 연결하기

이런 점에서 도시를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보고(寶庫)이자 공장으로 이해하는 네그리와 하트의 논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공통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나누면서, 그들이 오늘날 자본주의적 생산의 헤게모니적 특질로 이해하는 삶정치적 노동이 후자(인공적인 공통적인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이해한다. 도시는 “언어·이미지·지식·정동·코드·습관·관행으로 구성되는 인공적인 공통적인 것”으로 구성되며, 이것이 삶정치적 생산과정에 투입되고 그 결과물이 다시 도시에 기입된다는 것이다.<sup>15)</sup> 그리고 이 생산과정에서 협력은 점점 자본가로부터 자

---

13) 같은 책, 182쪽.

14) 마르크스, 앞의 책, 684쪽.

15)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통체』, 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2014, 350-351쪽.

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다중이 권력을 ‘다르게’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sup>16)</sup> 이러한 이해는 삶정치적 생산이 ‘다중 만들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너무나 ‘사회적인’ 시각으로 느껴진다. 사회화된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중 형성의 조건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지만, 다중재난 시대에는 그러한 생산과정 자체를 문제화하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이 아닐까? 비물질적인 것들의 토대를 이루는 자연적인 공통적인 것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는 고정자본 — 가령 ‘디지털 알고리즘’ — 의 재전유를 주장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고정자본의 물질적 토대를 문제화하는 것이다. 아니 오늘날 가속화되는 생태위기는 후자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제기하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공적인 공통적인 것을 중심에 둔 ‘사회적인’ 논의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즈의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유물론적 접근은 인공적인 공통적인 것의 토대가 되는 자연적인 공통적인 것이 유한하다는 현실을 “이상주의적으로 초월한다는 점에서 … 충분히 ‘유물론적’이지 못”하다.<sup>17)</sup>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유물론적’이지 못한 이유는 또 있다. 비물질적인 것을 중심에 둔 사고는 우리 신체의 일상적인 재생산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다루기 쉽다. 니콜라이 술츠의 말처럼 생산이 재생산을 파괴하는 시대에 이는 큰 한계다.<sup>18)</sup> 우리가 임금노동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면 — 적어도 그것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으려면 — 지금과는 다른 재생산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도시민의 재생산이 도시 바깥의 시골에 기생하는 문제적인 공간적 패턴 역시 문제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공통적인 것의 생태학이 필요하다. 첫째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삶정치적 생산의 토대를 인식하기 위해서, 둘째는 도시(와 시골)에 거주하는 지구생활자들의 재생산 문제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전자를 충분히 문제화하지 않으면 후자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후자를 이루지 못하면 전자의 파국적 효과를 막을 수

16) 여기서 “다르게”라는 말의 의미는 “공통적인 것과 행복을 분리하지” 않는 것, “비주권적인 제도들을 구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크일 하트, 『어셈블리』, 이승준·정유진 옮김, 알렘, 2020, 32쪽).

17)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옮김, 창비, 2020, 280쪽.

18) 다음을 보라. 니콜라이 술츠, 『나는 지구가 아프다』, 성기완 옮김, 이음, 2023.

없다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인공적인 공통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삶정치적 생산을 인공-자연의 두 공통적인 것이 분리불가능하게 얽혀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그 생산에 매우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선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얽힌 방식을 살펴보자. 대표적인 비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지각되고 유통되려면 물질적인 몸을 입어야만 한다. 과거 LP, 테이프, CD, DVD 등의 물질적 매체로 유통되던 음악과 영화는 이제 파일 형태로 공유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역시 물질적 매체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러한 전자기기를 만들기 위한 각종 광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 데이터센터를 작동시키는 전기 등이 필요하다. 감정과 기억 같은 비물질적인 것 역시 물질적인 것과 얽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은 사람들의 “감정의 구조”(레이먼드 윌리엄스)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요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사회와 자연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는 자연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비물질이 늘 물질과 함께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물질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의 협력 역시 문제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생산이 우리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딘가의 자연의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생산과정 속의 협력을 긍정하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이는 카펜치스의 질문과도 연결된다. “우리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수단들(대표적으로 인터넷)이 커먼즈의 파괴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커먼즈에 기반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sup>19)</sup> 이는 ‘사회적인’ 협력이 가진 한계를 드러낸다. 자연적인 공통적인 것과 우리 일상의 재생산을 염두에 두지 않은 협력과 삶은 지구 어딘가의 파괴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지구가 유한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 (비물질) 생산에서 자연은 어디선가 끝없이 공급되는 자원으로 전제

---

19) George Caffentzis, “commons,” *Keywords for Radicals: The Contested Vocabulary of Late-Capitalist Struggle*, Edited by Kelly Fritsch, Clare O'Connor and A. K. Thompson, California: AK Press, 2016.

되어 있다. 이러한 환상 역시 재난을 가속시킨다.

요는 '사회적인' 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의 협력을 비물질 생산이 아니라 대지에 두면서 이를 토대로 한 다른 재생산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 IV. 도시적인 것의 가능성

그러나 이것을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큰 오해다. 우선 돌아갈 자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화된 자본주의에서 도시화 바깥의 자연이 존재할까? 이 말은 우리가 도시를 문제화하면서도 도시적인 것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때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도시와 구분되는 도시적인 것의 개념이 유용하다.<sup>20)</sup> 르페브르에 따르면 도시적인 것은 온갖 것을 모으는 '형식'이다. 이 형식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내용도 만들어내지 않지만 창조를 집중시켜 모든 것을 생산해 낸다. 그래서 도시적인 것은 어떤 가능성의 무대가 된다. 이 무대에서는 "잠재적으로 모든 일이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곳곳에 균중이 모일 수 있고, 물건들이 쌓이며, 축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끔찍하거나 유쾌한 사건이 불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도시적 공간의 매혹이 여기에 있다."<sup>21)</sup> 이를 통해 도시에서는 산업화의 동질화 작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차이 공간들이 생성된다. 우리는 이러한 생성 과정을 도시 커먼즈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적인 것은 네그리와 하트가 말하는 공통적인 것의 보고이자 공장으로서의 메트로폴리스와 아주 유사하다. 르페브르가 도시적인 것을 모든 것이 도래하는

---

20) 르페브르는 도시(ville)라는 단어보다 도시적 현상 또는 도시적인 것(l'urbain)을 선호하는 이유가 "도시라는 표현이 한정적이고, 어떤 최종적인 대상, 주어진 과학적 대상, 즉각적 행위의 목표물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르페브르, 앞의 책, 28쪽). 즉 '도시적인 것'은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인 대상 혹은 가능한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다.

21) 같은 책, 219쪽.

“하나의 순수한 형식, 즉 만남의 지점, 모임의 장소, 동시성”<sup>22)</sup>으로 규정한다면, 네그리와 하트 역시 메트로폴리스를 “공통적인 것의 공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자원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재화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공간”, “예측 불가능하고 우발적인 마주침”<sup>23)</sup>의 무대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의에서 도시적인 것/메트로폴리스는 부정적인 마주침, 대결,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으기/모이기(assembly)의 잠재력이 창발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모으기/모이기의 힘을 ‘사회적인’ 전환 너머 생태적인 전환으로 이끄는 것이다. 르페브르의 도시적인 것은 여기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도시적인 것과 인공적인 공통적인 것의 (공장으로로서의 메트로폴리스와의) 유사점을 이야기했지만 도시적인 것은 자연적인 공통적인 것보다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게도 도시는 자연의 일부이며 그것의 특정한 짜임이다. 그래서 도시적인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더불어 자연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 까닭에, 도시가 완전히 인공적일 수 없는 까닭에, 아니 인공적인 것 자체가 자연적인 것의 일부인 까닭에 도시는 자연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이처럼 인공적인 것이 지배적인 것처럼 보이는 도시가 자연적이기도 하다는 사실, 도시가 인공과 자연의 접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우선 우리를 공통의 삶에 연루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도시 역시 자연의 일부인 까닭에, 도시(민) 역시 생태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물론 그 영향에 종속되는 정도가 계급, 지역, 인종,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겠지만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준 사건이다. 우리는 우리 가족만, 우리 회사만, 우리 학교만, 우리나라만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는 외국인 차별에 앞장서던 정부가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였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이들의 안전을 통해서만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만, 이는 전염병이라

---

22) 같은 책, 202쪽.

23) 네그리·하트, 『공통체』, 350, 352쪽.

는 자연적(이면서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를 공통의 존재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네그리와 하트는 비물질적인 것의 생산에서 다중 되기의 조건을 찾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생태 위기 하에서 물질적인 것이 불가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도시가 자연과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의 몸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스테이시 앨리모는 “인간이 언제나 인간을 넘어서는 세계와 맞물려 있는 짜임을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는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이 궁극적으로 ‘환경’과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4)</sup> 이렇게 몸과 그 바깥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를 횡단적으로 연결하는 조건이 된다. 이는 생태 위기에서 더욱 가시화될 수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물질들이 우리를 문자 그대로 오염시키면서 연결하여 ‘우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sup>25)</sup> 여기가 변형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앨리모에 따르면 “강력한 윤리적·정치적 가능성은 인간 신체성과 인간을 넘어서는 자연 사이의 문자 그대로의 접촉 지대로부터 부상한다.” 왜 접촉 지대에서 가능성이 부상하는가? 그 접촉 지대는 “비활성적이고 텅 빈 공간이나 인간이 사용할 자원으로만 여겨지는 환경”이 “그들 자신의 필요, 요구, 행위를 지닌 살된 존재(fleshy beings)의 세계”<sup>26)</sup>로 등장하는 지대이고, 그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연루된 그 세계 변형의 비결정성에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나 칭은 “생존이 언제나 타자를 수반한다면, 그것은 자기-와-타자 변형의 비결정성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종 안에서 또한 종을 가로지르며 우리의 협력을 통해 변화한다”고 쓴다.<sup>27)</sup> 생명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 가능한 탓에 타자와의 협력, 즉 고도로 복잡하며 우리가 연루된 그 영역의 예측 불가능한 작동 과정 속에서 함께 변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시적인

24) 스테이시 앨리모, 『말, 살, 흙』, 윤준·김종갑 옮김, 그린비, 2018, 18쪽.

25) 물론 그 ‘우리’가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 시기를 간단히 돌이켜보면 한편으로는 공포와 불안에 전연되어 소수자를 차별하면서 배타적으로 형성된 ‘우리’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능동적으로 연대하며 형성되는 ‘우리’도 있었다. 현실은 이 둘 사이를 오가는 모순된 존재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순 자체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이며 실제로 그 힘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준다(권범철, 「가족을 공통하기: 예술가 근족과 “아트 스피릿 머신”」, 『문화와 사회』 32권 2호, 2024).

26) 앨리모, 앞의 책, 19쪽.

27) Anna Lowenhaupt Tsing,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p. 29.

것 역시 마찬가지다. 도시적인 것이 물리적 경계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역의 자연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사실 — 도시적인 것은 도시화 과정 그 자체다 — 은 한편으로는 불균등 발전이라는 문제적인 공간적 패턴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형의 비결정성에 가담하는 일이기도 하다. 도시가 인공과 자연의 접합이라는 사실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도시라는 살된 존재의 변형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것의 구성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종속된 도시적인 것은 살된 존재이 기보다 고정된 구조로만 보인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도시적인 것을 추상화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제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거주함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도시계획은 이 거주함을 거주지의 문제로, 즉 “먹고 자고 재 생산하는 ‘인간성’의 기초 요소로 제한시켜 이해”한다.<sup>28)</sup> 삶을 생존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도시계획은 도시의 모든 공간을 규정한다. 공간의 성격과 의미를 정의하고 그에 따라 가능한 활동을 계획한다. 즉 사회의 모델을 제시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모델을 도시혁명으로 향하는 경로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이해하면서 “모델을 파괴해야만 길을 터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sup>29)</sup> 그의 작업은 이상적인 사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개방”하는 것이다.<sup>30)</sup>

경로의 개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우리에게 공간을 이미 의미화된 용기로 제공하는 도시계획에 여백을 도입할 필요를 제기한다. 모델을 제시하는 계획에 “우발성, 여백, 카오스”<sup>31)</sup>를 도입하여 도시적인 것의 분열과 증식을 확대하고 변형의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는 위로부터의 도시계획에 아래로부터 개입하는 전략이다. 신승철과 이승준은 제국적 협치에 대항하는 구성적 협치를 주장하는데, 전자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행정의 거수기로 흡수하는 관치라면, 후자는 “아래로부터 발흥하는 민중, 소수자, 생명의 역량을 모아서 공공 영역을 압박”<sup>32)</sup>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관계를 제도와 관계망의 차이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대응 관계는 도시계획과 도시적인 것

28) 르페브르, 앞의 책, 136쪽.

29) 같은 책, 273쪽.

30) 같은 책, 111쪽.

31) 신승철·이승준, 『기후 협치』, 알렘, 2025, 111쪽.

32) 같은 책, 113쪽.

의 관계와 유사하다.

제도가 ‘의미화’를 지향한다면, 관계망은 ‘지도화’를 향해 나아간다. 제도는 입구와 출구, 원인과 결과, 문제 제기와 대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의미화의 방법론을 따른다. 반면 관계망은 입구와 출구의 분열, 문제 제기와 대답의 분열 속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지도 그리기를 통해서 관계망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 구성적 협치의 과정은 “~은 ~이다”라고 정확하게 의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나 ~이거나”로 끊임없이 연결접속되는 과정 자체를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거주함의 회복은 거주함의 모델(거주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제작 과정에서 선택할 경우의 수를 늘리는”<sup>34)</sup> 실천 속에서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리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인’ 협력을 넘어서는 생태적 전환 혹은 다른 재생산 방식의 발명 역시 특정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제작의 경우의 수를 늘리는 과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에 여백을 도입하는 과정이 경우의 수를 늘리는 실천, 끊임없는 연결접속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구생활자를 포함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현재의 도시계획 역시 언제나 완전한 지배형태일 수는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계획이 짠 추상화의 그물이 도시 전역에 던져질 때도 그것은 언제나 헤어진 그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진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여백의 도입이 가져올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V. 결론: 도시 커먼즈에서 자연의 자리

도시에서 커먼즈는 다중재난 시대에 의미 있는 삶형태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도시’, 즉 도시의 자연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

---

33) 같은 책, 156-157쪽.

34) 같은 책, 157쪽.

이다. 우리의 도시가 주로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여겨지는 까닭에 도시 커먼즈에 대한 구상 역시 주로 ‘사회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듯하다. 물론 사회적인 관계를 살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럴 때에도 그 관계에 얽혀 있는 자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관계만으로는 다른 재생산 방식을 만들어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중재난 시대에 ‘사회적인’ 전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시 커먼즈의 생태학이다.

그러나 도시의 자연으로 다른 재생산을 구축하는 것은 (전환은 차치하고) 너무나 허황된 일로 보이므로,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에게 시선을 돌리는 일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인간에게 도시의 자연은 잘 보이지 않거나 풍경으로만 짜여 있지만, 그런 자연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이 있다. 도시의 흙은 건조물을 지탱하는 비활성 재료로만 이해된다.<sup>35)</sup> 그러나 아스팔트 아래에 있거나 일부 노출된 흙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이 있다. 500그램도 안 되는 기름진 흙에는 지구 전체 인구보다 많은 미생물이 산다.<sup>36)</sup> 아파트 단지에 만들어진 좁은 화단에도 흙이 있고, 그에 기대어 벌레와 꽃, 쥐, 나무, 새, 고양이가 산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사람들의 주거지만이 아니라 새와 고양이도 함께 사는 곳으로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환경을 재편한다면 어떻게 될까? 도시에 아직 미래가 있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같은 한가한 구호가 아니라 ‘새가 살기 좋은 도시’, ‘고양이가 걷기 좋은 도시’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도시의 자연을 풍경이 아니라 생명의 터전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를 만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질문에 실천적으로 답변하는 한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sup>37)</sup>

공공예술 작업을 진행해 온 예술가 박찬국은 2013년부터 몇몇 예술가들과 함께 동대문 신발도매상가 옥상에 동대문옥상낙원(DRP)을 만들고 고립된 섬과 같은 옥상에서 다른 옥상과 연결되기 위해 전령으로서 벌을 키웠다. 도시의 옥상에서 벌을 키우

---

35) 다음을 보라. 김신희정, 「흙에서 시작하는 생태정치: 인류세 위기와 농생태학 전환」, 『문화/과학』 124호, 2025.

36) 데이비드 몽고메리, 『흙: 문명이 앗아간 지구의 살갓』, 이수영 옮김, 삼천리, 2010; 박이은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다: 에코페미니즘의 생태-사회-경제의 위상 재위치 정치」, 『문화/과학』 124호, 2025에서 재인용.

37) 이어지는 동대문옥상낙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다. 권범철, 앞의 글.

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했다. 벌이 옥상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기 위해서는 옥상마다 밀원 식물을 심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옥상이 개방되어야 했으며, 그에 따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즉 벌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물, 더 개방적인 공간, 더 친밀한 관계 ... 등이 필요했다. 그의 작업은 우리가 벌을 이 도시의 거주자로 인식하고 그 인식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에 접근할 때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동대문 신발도매상가를 인간이 신발을 사고파는 곳만이 아니라 벌과 벌이 꿀을 수집할 꽃과 그 꽃을 심을 개방된 공간과 그것을 함께 돌볼 사람들이 함께 엮힌 장소로 바라볼 때 이 도매상가와 주변 도시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간다면 우리는 도시를 어떤 공간으로 바꾸어갈 수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벌이 인간들에게, 인간들이 사는 도시 공간에 새로운 필요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벌은 인간만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도시에 새로운 차원의 얽힘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다닐 수 없는, 옥상들 사이의 대기에 벌의 길이 그려지고, 그 길을 돌보는 인간의 행동은 또 다른 인간들 사이의, 인간과 다른 종 사이의 얽힘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벌 네트워크’는 다른 종과의 협력이 인간들 간의 열린 관계를, 즉 근족<sup>38)</sup>을 만드는 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래로부터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도시의 자연에서 살아가는 비인간 생명을 돌보는 일은 (비)인간들 사이의 근족 형성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이것이 다시 기존의 임노동 중심의 삶형태에 균열을 내는 시작점이 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벌 키우기 혹은 벌과의 협력은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스케일의 자연이 도시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인간인 우리는 안타깝게도 벌처럼 꽃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며 잘 알고 싶지 않은 무수한 생명이 도시에 서도 살아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도시의 자연을, 흙을, 강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비인간 생명들은 도시의 흙에서 도시계획의 그물에 계속해서 구멍을 내왔다. 다시 말해 여백을 도입해 왔다. 그 과정에 가담하는 것이 거주함을 회복하고 사회적인 전환

38) 소피 루이스는 가족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혈연을 완전히 내려놓은 동지적 관계, 즉 “근족”(kith)을 만들자고 주장한다(소피 루이스, 『가족을 폐지하라』, 성원 옮김, 서해문집, 2023.).

을 넘어서 생태적인 전환으로 향하는 경로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러한 가담을 통해 도시 안의 자연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자연에 기댄 삶형태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시 바깥의 자연과 맺고 있던 문제적인 관계를 조금씩 해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파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지와 관계 맺으려는 의지가 삶의 양식 전체를 바꾸려는 의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한다.<sup>39)</sup> 실비아 페데리치 역시 “물질적인 재생산 수단의 ‘공통화’가 “집합적 이해관계와 상호 유대가 창조되는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보면서 이것이 “노예 상태의 삶에 대한 저항의 일선이자 자율적 공간의 구축을 위한 조건이며,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sup>40)</sup> 다중재난 시대에 이들이 주장하는 대지와 관계 맺기는 점점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도시적 삶의 가능성이 이러한 관계 맺기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39)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파, 『페미니즘의 투쟁』, 이영주·김현지 옮김, 갈무리, 2020, 336쪽.

40) Silvia Federici,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in an Era of Primitive Accumulation,” in *Re-enchanting the World: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Oakland, CA: PM Press, 2019, p. 108.

## 참고문헌

- 권범철, 「가족을 공통하기: 예술가 근족과 “아트 스피릿 머신”」, 『문화와 사회』 32권 2호, 2024, 139~187쪽.
- 김신효정, 「흙에서 시작하는 생태정치: 인류세 위기와 농생태학 전환」, 『문화/과학』 124호, 2025.
- 네그리, 안토니오·하트, 마이클, 『공통체』, 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2014.
- \_\_\_\_\_, 『어셈블리』, 이승준·정유진 옮김, 알렙, 2020.
- 달라 코스마, 마리아로사, 『페미니즘의 투쟁』, 이영주·김현지 옮김, 갈무리, 2020.
- 루이스, 소피, 『가족을 폐지하라』, 성원 옮김, 서해문집, 2023.
- 르페브르, 앙리, 『도시혁명』, 신승원 옮김, 지식올만드는지식, 2024.
- 마르크스, 칼, 『자본론 제1권 (하)』,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01.
- 몽고메리, 데이비드, 『흙: 문명이 앗아간 지구의 살갓』, 이수영 옮김, 삼천리, 2010.
- 무어, 제이슨,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0.
- 미스, 마리아·시바, 반다나,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옮김, 창비, 2020.
- 박이은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다: 에코페미니즘의 생태-사회-경제의 위상 재위치 정치」, 『문화/과학』 124호, 2025.
- 슐츠, 니콜라이, 『나는 지구가 아프다』, 성기완 옮김, 이음, 2023.
- 신승철·이승준, 『기후 협치』, 알렙, 2025.
- 앨러이모, 스테이시, 『말, 살, 흙』, 윤준·김종갑 옮김, 그린비, 2018.
- 윌리엄스, 레이먼드, 『시골과 도시』, 이현석 옮김, 나남출판, 2013.
- 이와사부로 코스, 『유체도시를 구축하라!』, 서울리다리티 옮김, 갈무리, 2012.
- 최병두, 「도시발전 전략에 있어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4권 제5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8.
- 클리버, 해리, 『자본론의 정치적 해석』, 권만학 옮김, 풀빛, 1986.
- Caffentzis, George, “commons,” in *Keywords for Radicals: The Contested Vocabulary of Late-Capitalist Struggle*, Edited by Kelly Fritsch, Clare O'Connor and A. K. Thompson, California: AK Press, 2016.
- Cleaver, Harry, *Rupturing the Dialectic: The Struggle against Work, Money, and Financialization*, Chico, CA: AK Press, 2017.
- Federici, Silvia,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in an Era of Primitive Accumulation,” in *Re-enchanting the World: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Oakland, CA: PM Press, 2019.

Hansen, Bue Rübner/Zechner, Manuela, “Extending the Family: Reflections on the Politics of Kinship,” in *Commoning: with George Caffentzis and Silvia Federici*, Edited by Camille Barbagallo, Nicholas Beuret and David Harvie, London: Pluto Press, 2019.

Midnight Notes Collective, “Introduction to the New Enclosures,” in Silvia Feeirci, *Re-enchanting the World: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Oakland, CA: PM Press, 2019.

Mitchell, Don,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New York: Guilford, 2003.

Tsing, Anna Lowenhaupt,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 국문초록 ■

## 도시 커먼즈의 생태학을 위한 시론

권 범 철

동아대학교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자본주의는 노동을 강제하는 시스템이며, 도시는 그로 인한 임금노동 중심의 삶 형태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강제하는 공간적 패턴이다. 따라서 다중재난을 낳는 시스템을, 그 시스템에 기여하는 노동을, 그러한 노동이 중심이 된 삶 형태를 문제화하려면 도시를 문제화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를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보고이자 공장으로 다루는 네그리와 하트의 논의는 인공적인 공통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자연의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공통적인 것의 생태학이 필요하며 르페브르의 도시적인 것에 대한 논의는 이를 위한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도시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지만 자연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도시적인 것은 인공과 자연의 접점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의 지대로 남아 있다. 그 접점에서 비활성화된 자원으로만 여겨지던 환경이 자신의 행위를 지닌 살된 존재(fleshy beings)로 등장하여 우리를 '오염'시킴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연루된 그 세계 변형의 비결정성에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살된 존재의 변형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델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개입하여 도시적인 것의 우발성을 확대하고 변형의 경로를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 도시, 도시 커먼즈, 도시적인 것, 공통적인 것, 자연

■ Abstract ■

## An Essay Toward an Ecology of Urban Commons

Kwon, Beom-Chul

Dong-A University

Capitalism is a system that compels labor, and the city is a spatial pattern that both enables and enforces the wage-labor-centered form of life resulting from it. Therefore, to problematize the system that produces multiple disasters, the labor that contributes to that system, and the form of life centered on such labor, we must problematize the city. In this regard, Negri and Hardt's discussion, which treats the city as a repository and factory of the common, reveals its limitations in that it focuses on the artificial common while neglecting the question of nature. We therefore need an ecology of the common, and Lefebvre's discussion of the urban can serve as a useful concept for this purpose. This is because the urban, while socially constructed, cannot be separated from nature. In other words, the urban remains a zone of possibility in that it exists at the intersection of the artificial and the natural. At that intersection, as the environment—previously regarded merely as inactivated resources—emerges as fleshy beings with their own agency and "contaminates" us, we cannot help but participate in the indeterminacy of that world-transformation in which we are implicated. To guide the transformation of those fleshy beings in the direction we desire, what is needed is not urban planning that presents models, but strategies that intervene from below to expand the contingency of the urban and diversify the pathways of transformation.

Key-words : City, Urban Commons, the Urban, the Common, Nature